

회원님들의 최근 활동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발표

환경부는 2008년도 2/4분기에 전국 1,635개소의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 중 1,569개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검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13.3%인 208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208개소에 대해 사용중지(108개소), 폐쇄(23개소) 등의 조치와 함께 안내판에 '사용중지(사용금지)' 또는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알리는 게시문을 게재하였다.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과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신임사장 취임



한국수자원공사의 제12대 사장으로 김건호 사장이 선임되어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 신임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 '블루

폴드'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물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우리공사가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해 살아남고 또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수공을 세계 유수의 종합적인 물 관리 전문기업이자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창조하는 선진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공사의 역량을 키우고 업무영역을 넓혀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K-water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기도, 서울대 토목공학과 등을 나와 건설부 차관보,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건교부 차관, 한국공항공사 이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대우건설기술연구원

비상근 고문 등을 지냈다.

환경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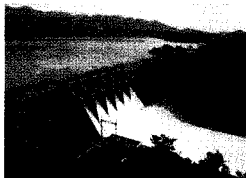
양용운 신임 이사장 임명



환경부는 지난 7월 23일 산하단체인 환경관리공단의 신임 임원으로 양용운 이사장을 임명했다. 양 신임이사장은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안전과 교수로 영남대학교에서 환경공학 박사위를 받았으며 2000년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토해양부

가을가뭄 대비 용수공급 대책 수립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주기적인 댐 용수공급능력의 분석을 통해 가뭄 단계별로 댐 수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댐 용수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대비해 이미 설치된 상수도 비상관로(43개소, 176만 3,000㎥/일)를 일제히 점검하고 비상급수를 위한 차랑(158대), 급수탱크(158개, 376톤), 병물(500㎞, 4만 5,000개) 지원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뭄 및 홍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수자원시설의 최적 활용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신규 수자원개발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영남내륙지역의 물부족 해갈 기대

국토해양부는 경상북도 고령·성주·달성군 등 영남내륙지역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부족이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준공으로 인해 항구적으로 해소된다고 밝혔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는 총 1,109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취수장 각 1개소,



관로 77km의 시설로 하루 44천 톤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난 2001년 2월 착공하여 금년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게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의 준공식을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고령정수장에서 9월 2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금번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3만 7천여 명의 급수혜택과 816만㎡의 산업단지(달성 1·2차 및 다산지방산업단지)에 맑고 깨끗한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탄천물재생센터 친환경공원으로 탈바꿈



혐오시설로 인식됐던 하수처리장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가 숲속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갖춘 친환경공원으로 변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1,284억원을 들여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상부 친환경공원 조성공사가 3단계로 접어들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침전지를 복개해 진행중인 3단계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2004년 7월 완공된 1단계 1만 283㎡와 지난해 10월 완공된 2단계 1만 5,600㎡를 포함해 총 7만 5858㎡의 친환경공원이 탄생한다. 3단계 사업지에는 어린이 교통체험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앞서 1단계 사업지에는 시민들을 위한 놀이·휴식·문화공간이, 2단계 사업지에는 주차장과 숲속 산책로 등이 조성돼 개방됐다. 한

편 시는 물재생센터를 거쳐 탄천으로 흘러나가는 생활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091억 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하수처리장, 최우수 시설로 선정

부산광역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에서 해운대하수처리장이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중대형시설(500㎡/일 이상) 337개와 134개 시·군 소규모(50~500㎡/일 미만) 742개 시설 등 총 1,079개 중 6개월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됐다. 해운대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주민 협의회와 공동으로 환경사진공모전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만 총 10여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견학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설로서 친근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부산시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포상금 5,000만원과 관계자 표창 및 사업소 인준패 수여 등의 포상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안 요구'가 받아들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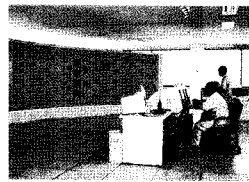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인천광역시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질적인 상수도 요금 과다부담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송도컨벤시아서 열린 '상수도 요금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요금체계 개선안에 대해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상수



도 요금 과다문제가 불거진 지 20년 만에 나온 수자원공사의 첫 공식입장이어서 향후 사태해결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지산하수처리시설, 최우수 시설로 선정



대구광역시 지산하수처리시설이 환경부가 실시한 2007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처리장으로 선정됐다. 시는 정부의 수질개선 정책과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고도처리시설을 100% 완공해 금호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전 직원이 헌연일체가 돼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원가 절감과 하수처리 효율을 높였으며 하수처리장의 혐오성 해소를 위해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 보완하고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등 체험교육장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02년부터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 발표됨으로서 대구의 하수도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각종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류지역과의 물 문제로 인한 갈등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오수전용관 설치로 수질 오염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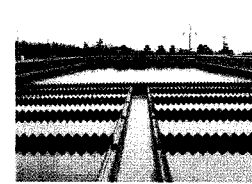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서구 유촌·

쌍촌·내방·화정·광천동 일원의 기존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인 오수전용관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와 빗물 등은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되고 있으나 우천시 일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처리장은 빗물 유입으로 처리 효율이 낮은 데 따른 방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에 대해 201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설오수관 30.5km, 기존 우·오수관 개량 3.1km, 배수설비정비 1,582가구 등 분류식 하수관 설치공사를 추진한다. 또한 시 관계자는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이 정비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은 물론, 불명수 유입방지 등으로 하수처리장 효율이 증대되고 광주천 및 영산강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환경부 전국종합평가결과에서 A등급



대전광역시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2007년 전국 폐수처리시설 125개소에 대한 운영·

관리실적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 2차 시험 평가한 결과 대덕산업단지(구 대전 제3·4산업단지) 폐수처리장(시설용량 6만 톤)이 A등급을 받게 됐다. 대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처리하면서 강화되는 환경관련 수질 기준을 한 차례도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개선을 했다. 특히 악취시설 개선을 위해 2006년도에는 4~5억여 원을 투입해 농축조, 저류조 및 탈수동에 악취방지시설(밀폐시설 및 흡착탑) 설치 및 폐수처리장 주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여 악취 저감을 유도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에는 악취 흡착탑의 활성탄교체, 압롤박스 교체, 탈수 슬러지 적재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를 위해 탈수동 유출구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해 왔다.

충청북도

도내 약수터 11곳 음용 부적합

충청북도내 92개의 먹는물 공동시설 중 12%인 11곳이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금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도내 95개 약수터와 샘터, 우물 중 수원고갈 등으로 검사 불가능한 3곳을 제외한 92곳을 대상으로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곳의 수질이 음용

수로 부적합했다. 부적합 시설은 ▲청주시 사천동 신동아아파트 공동우물(총대장군군 검출.사용금지) ▲청주시 산남동 구룡산정상 공동우물(총대장군군 검출.사용중지) ▲충주 안림동 샘골 약수터() ▲충주 연수동 막은대미재 약수터() ▲제천시 봉양읍 팔송 공동우물(총대장군군과 분원성대장군군 검출.사용중지) ▲제천시 고암동 탐안 약수터(총대장군군 검출.사용중지) ▲제천시 봉양읍 명도 공동우물() ▲제천시 강제동 몽암사() ▲청원군 미원면 옥화유원지 공동우물(질산성질소 기준초과.사용중지) ▲옥천군 군북면 비야골 웅달샘(총대장군군과 분원성대장군군 검출.사용중지) ▲증평군 증평읍 안골샘터(총대장군군 검출.사용중지) 등이다. 이들 시설의 수질 부적합 이유는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 분변 등의 영향 증가, 시설 상류의 봄철 등산객 증가 등이 꼽혔다.

전라남도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45억원 투입



지속되는 가을가뭄으로 내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라남도가 45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영농기 급수가 완료되고 도내 평균 저수율이 50%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저수지 준설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준설사업비 45억원과 시·군 보유 중장비를 투입해 광양 북곡제 등 도내 146개소 저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함께 오염물질을 제거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준설된 토사는 농경지 복토용으로 활용하거나 저지대 매립, 하천 제방 성토용으로 이용하고 제방 주변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설치해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목표 하수처리용량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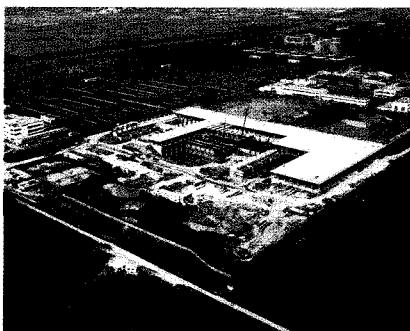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2025

년을 목표로 종전 4개 시, 군체제로 짜인 불합리한 하수처리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현재 하수처리시설용량을 24만 3,000t으로 증설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하수발생량이 16만에서 2025년 7만 7,000t이 늘어난 23만 7,000t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현재 하수처리 시설용량인 19만 7,000t을 24만 3,000t으로 증설키로 했으며 내년 하수도 재정사업에 총 655억원(국비 407억, 지방비 248억)을 투자키로 했다. 이는 올해 543억원(국비 347억, 지방비 196억)보다 11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상수도본부 양성필 하수계획과장은 "하수관거 정비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2016년까지 하수관거시설을 100%를 달성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청정제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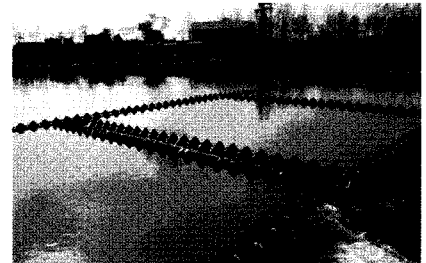
시 발생 주변지역내 광역상수도 공급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4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닭, 오리 등)를 모두 살처분(매몰)했던 관내 포승읍 석정리 해당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도로굴착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공급 주관로 L=18.7km(D60~300mm)와 마을 내 급·배수관로 L=77.3km(D10~20mm)의 관로 공급 공사를 이달 15일경 착공해 올해 말 완공 시 해당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릉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강원도 강릉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전국 1,079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도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결과 소규모 공공하수도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00만원의 포상금과 환경부장관의 표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문진하수처리장이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3위에 선정되는 등 강릉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가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입증 받았다.

청주시

무심천에 사계절 맑은 물 흐른다



충청북도 청주시 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무심천에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를 수 있게 됐다. 시는 무심천 수질개선과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갈수기인 10월과 11월 그리고 다음해 3월 등에 1일 12만 2,000t의 대청호 물을 흘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천유지용수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되면서 갈수기에 필요한 용수 1,100만에 대해 원수대금의 50%인 3억 3,000만원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무심천은 그동안 갈수기에는 15cm 가량의 수위로 건천화되는 등 하천 바닥이 드러나 경관을 저해했으나 대청호 물을 방류할 경우 20~25cm 가량의 수위가 유지되면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수변 경관 개선은 물론 시의 수질오염 총량관

리 할당량인 1일 43kg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군

조양천 물래버린 간폐 투기로 몸살

강원도 정선군 조양천 상류지역 덕송~나전지구 수해 복구현장 주변 하천이 물지각한 건설업체가 물래버린 건설폐기물로 남한강 하류 도시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 이 현상은 2006년도 집중우해로 인해 도로가 파손돼 정선국도관리사무소가 덕송~나전 123지구 1.5km 구간 75억여 원의 금액으로 정선국도유지가 발주해 원주 세영GS건설 및 3개 업체가 참여해 2007년 12월에 완공했다. 그러나 세영GS 구간 하천변에 혼합폐기물 100여 톤 가량을 물래 버리고 철수를 해 10여 개월 간 물속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건기인 10월이 되면서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내 영월군에 거주하는 60세 최모씨가 발견, 제보하면서 환경의식 없이 폐기물을 하천에 물래 버리는 업체를 찾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정선군 환경과장은 국도관리사무소와 협력해 폐기물 투기업체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관내 하천이 수해로 인해 버려져 있는 임목 폐기물 및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조양천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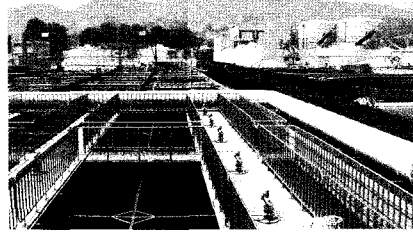
'어린이 환경투어' 펼쳐

전라북도 군산시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환경투어'를 펼친다. 이번 환경투어는 9개 초등학교 350여 명이 참가하여 시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철새조망대 등에서 현장교육이 이뤄진다. 참여 어린이들은 쓰레기의 처리과정과 재활용품 분리선별과정을 체험한 뒤 하수처리과정에 대한 영상물 시청과 처리시설을 견학한다. 또 금강철새조망대를 방문하고 철새이동 등에 대한 영상물시청과 부화체험관, 식물생태관을 관람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교재 등을 통한 간접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 관내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우수'



전라남도 영광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실시하는 공공하수시설의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남 지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와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실시했고 하수도 발전 분야, 서비스, 부생자원의 재이용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이 평가됐다. 특히 주민 친화적 공원조성 및 운영요원의 전문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하수도 발전분야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박정하 소장은 "다음해 평가에서는 전국 1위를 목표로 삼고 기존의 평가항목을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친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시

북항 배수펌프장 준공 침수피해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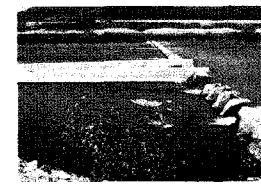
전라남도 목포의 북항 배수펌프장이 준공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한 북항 배수펌프장을 착공 3년만인 22일 확장·준공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북항 배수펌프장은 펌프장 1동에 배수능력이 분당 300인 670마력 배수펌프 2대와 분당 258인 570마력 배수펌프 4대를 설치해 최대 1,632을 펌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분당 540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북항 배수펌프장 이설

공사를 마무리해 북항권 일대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진주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크게 개선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이 크게 개선돼 남강 수질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성과와 관련해 진주시는 국·도비 등 약 310억원을 확보해 2004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소독·여과시설 설



치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수질 관리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 진주공공하수처리

시설은 현재 시설용량이 15만m³/일 규모로 진주시 가지 및 인근 금산·명석·집현면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해 남강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생활하수와 분뇨, 나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도 연계 처리하는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이다. 현재 추진중인 시설용량 4만m³/일 규모의 3단계 증설사업이 마무리되는 2011년에는 190,000m³/일 규모의 용량을 갖출 전망이다.

"전국 상하수도인이면
누구나 보는 협회지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소식을 담아보세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세요?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회원님들의 소식을 소중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 곳

홍보팀 신재택 팀장, 공석진 대리

Email : myakong@kwwa.or.kr

Tel : 02-3156-7733